

文香이 허니니 문학관을 찾아서

20세기 한국 근대사의 아픔 그린 장대한 여정

조정래 대하소설 '태백산맥' 모티브로 별교읍에 2008년 개관
육필 원고·출간 이후 신문보도 등 관련자료 700여점 전시
'소화다리'·'현부자집'·'보성여관' 등 소설 속 공간들 남아 있어

<20> 보성 태백산맥문학관

춘래불사춘(春來春來不似春)이라는 말이 실감
이 되는 요즘이다.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히고 얼었다.
사람들의 마음도 세상살이도, 정치, 경제도 단
했다.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낯설지는 않지만,
이 봄에 스스로를 윤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
다.

태백산맥문학관을 향해 가는 길, 미세먼지 때문
인지 오락가락하는 가느다란 빗줄기 때문인지 착잡
하다. 마음은 가라앉고 허전하다.

광주에서 별교까지는 얼추 한 시간 남짓 거리. 이
곳은 시리즈와 무관하게 수년 전 별교를 오갈 때 들
른 적이 있었다. 당시에는 대하소설 '태백산맥'을
모티브로 한 문학관이 들어선지 얼마 안 된 무렵이
었다. 그때 보았던 문학관의 잔상은 소설이 주는 무
계만큼이나 다소 무거웠다.

흘날리는 빗줄기 탓인지 문학관 주위가 다소 흐
릿해 보였다. 벽면의 벽화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
하다. 우리 민족의 역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투영된
느낌이다.

"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그림달이 서편 하늘에 비
스듬히 걸려 있었다." 대하소설 '태백산맥' (10권)
의 첫 장면은 그렇게 시작한다. 모든 소설의 첫 문
장은 작가의 산고가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부분
이다.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술한 파지를 내는 것은
작가의 숙명이다. 조정래 작가 또한 그러하였다. 언
젠가 그는 '원고지 첫 장을 쓰기 위해 무려 30여 장
가까운 파지를 낼 때가 있다'고 한 적이 있다. 서사
의 첫 머리를 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다.

'태백산맥'에는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가 녹아
있다. 대하소설이라는 이름처럼, 큰강이 유장하게
펼쳐지는 광경은 경이롭다. 인간의 군상은 마치 끝
없이 대해를 향해 다투듯 달려 나가는 잔물결과 다
를 바 았다.

"끝 간 데 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적막은 깊고 무
수한 별들이 반짝거리는 소리인 듯 멀리 스쳐 흐르
고 있었다. 그림자들은 무덤가를 벗어나기 시작했
다. 그리고 광막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
다."

'태백산맥'의 장대한 여정은 그렇게 끝난다. 10
권에 이르는 서사의 종점이 하나의 깊은 수목화처
럼 다가온다.

2008년 11월 21일 개관한 문학관에는 '태백산
맥'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비치돼 있다. 연면적
1375㎡(415평) 규모로 이곳에는 육필 원고를 비
롯한 159건 700여점이 전시돼 있다. 1층은 작가 조
정래와 소설 '태백산맥'에 대한 자료들로 이루어져
있다. 소설을 쓰기까지의 과정, 취재 수집에 담긴
그림과 내용, 다양한 사진, 소설 속 장면을 형상화
한 조형물, 출간 이후 신문 보도 내용 등이 전시돼
있다.

무엇보다 문학관에 전시된 1만66500장의 육필
원고가 시선을 압도한다. '혈서를 쓰듯' 글을 썼을
작가의 고뇌가 읽혀진다. 취재수첩, 만년필, 카메라,
지팡이, 한복 정장 등에서는 작가의 체취를 읽
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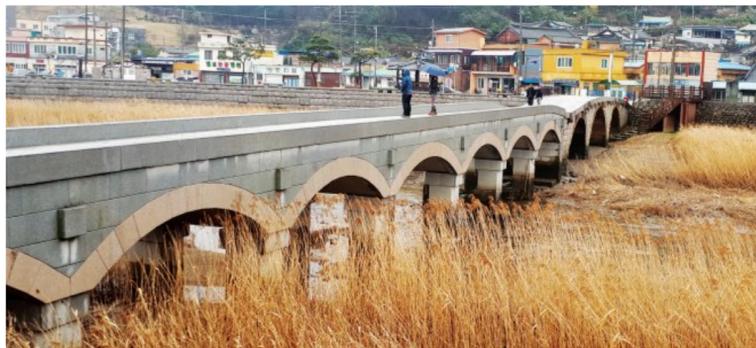
"필사는 정독 중의 정독이다"라는 글귀가 붙은 필
사본 전시판에는 작품을 필사했던 위승환, 김기호,
노영희 씨 등의 원고를 포함해 독자 필사본 23세트



별교읍에 있는 태백산맥문학관은 대하소설 '태백산맥'을 토대로 지난 2008년 개관했다. 이곳에는 작가 조정래의 육필원고를 비롯해 취재수첩 등 다양한 자료가 비치돼 있다.



소설의 주요 공간인 현부자네집.



별교 무지개다리.

가 놓여 있다.

1층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이는 벽화는 압권이다.
높이 8m, 폭 81m의 '원형상-백두대간의 영원' 벽화
는 소설이 상징하는 것만큼이나 웅장하면서도 다채
롭다. 모두 4만여 개 몽돌로 제작한 옥석벽화는 지리
산부터 백두산까지 몽돌을 수집해 만들었다. 민족의
영원이 투영된 벽화는 소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
세계를 실담해 담겨 있다.

'태백산맥'은 1983년 집필을 시작해 1986년 10
월 '제1부 한(恨)의 모닥불' 1~3권이 출간됐다.
이후 1989년 10월 '제4부 전쟁과 분단' 8~10권이

로 완간됐다. 작가는 스스로가 만든 '글감옥'에 갇
혀 소설 창작에만 매달렸다. 고독스럽지만, 황홀한
'글감옥'에 갇혀 작가는 치열한 창작의 사투를 벌
였다.

소설에는 김범우, 염상구, 새끼무당 소화 등 270
여 명이 등장한다.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정치하게 엮
여 '태백산맥'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겼다. 흔히
신은 인간을 창조하고, 인간은 인물을 창조한다는
말이 있는데 '태백산맥'을 읽고 나면 그 말의 의미
가 새삼 실감된다.

별교에는 소설 속 공간들이 남아 있다. 실재하는

공간은 상상력을 압도한다. 길을 걷노라면 어디선
가 열차가 달리는 환청을 듣게 된다. 시커먼 철교는
소설 속 인물 염상구가 철교를 접수하기 위해 강패
왕초 땅벌과 담력을 벌였던 곳이다.

철교다리를 지나 건너 보면 '소화다리'를 만날 수
있다. 1931년 6월에 건립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
원래는 부용교(芙蓉橋)라 불렸다. 소화다리는 비
극과 상처가 응집된 공간이다. 여순사건, 6·25의
격랑을 거치면서 양쪽의 세가 갈릴 때마다 총살형
이 이루어졌다.

읍내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를 유사하게 복원
한 건물도 있다. '보성여관'과 '별교금융조합'(현
별교농민상담소)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감돈다. 원
래 명칭보다 소설 속의 '남도여관'으로 알려진 보성
여관은 당시 일본인들의 중심거리인 '본정통'에 있
다. 2004년 12월 근대사적, 생활사적 가치가 인정
되어 등록문화재(제132호)로 지정됐다. 현재 보성
여관은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
했다.

태백산맥 문학거리를 걸어나오면 현부자집과 소
화의 집을 만난다. 현부자집은 소설 첫머리의 배경
이 되었던 곳으로 한옥과 일본식으로 이루어진 건
축물이다. 새끼무당 소화는 무당인 어머니와 함께
살지만 정갈한 여인이다. 조식의 특명을 받은 정하
섭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의 집에 드나
든다.

소화의 집 옆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다. 나무가 집
을 굽어보는 형상이다. 금방이라도 헛기침을 하면
안에서 누군가 나올 것 같다.

빈 거리를 텅텅텅 걷는다. 마치 열은 안개가 앞
을 가로막는 것도 같다. 이데올로기의 참상이 가장
격렬하고 슬프게 펼쳐졌던 별교. 과연 그로부터 우
리의 역사는 얼마나 사람을 위한 역사로 전개되었
는가. 과연 무엇을 위한 대립이며 누구를 위한 반목
과 갈등이었을까.

조정래 작가는 문학을 이렇게 정의한다. "문학은
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
다"고. 비단 문학뿐이라. 예술을 넘어 모든 사람살
이의 근본은 바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데 있지
않을까.

/글·사진=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

작품 속 장면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조형물(사진 위)과 대하소설 '태백산맥' 이미지.

SINCE 1982

각국 보청기 전문 A/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

“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”

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.
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.
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.

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) 227-9940
062) 227-9970
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) 765-9940
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) 752-9940

국제보청기

2015~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[5년 연속] 수상
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기술상
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(BIG Innovation Award) [혁신상품부문] 수상